

第269回國會 政治關係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7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9月18日(火)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審査된案件

o 의사진행의 건 ..... 1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각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위원들만 참석을 해서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의한 후에 바로 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선거 관련 사안들은 하루 빨리 처리를 해야 선거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위원님들이 불참을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특히 각 소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되는 대로, 합의되는 대로 전체회의로 넘겨주셔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특위 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배일도 위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인사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위원들만 있습니다만.....

○배일도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4시16분)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김정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김정훈 위원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도 모양이 참 안 좋습니다.

지금 대통령선거 관련, 우선 이제 정치관계법 개정, 이번 대선에 적용할 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기상 보면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번 대선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번 대선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 정개특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매니페스트 도입을 하자든지 또 우리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또 공작정치를 방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요한 법안들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대통합민주신당 쪽에서는 지금 정수조정을 빌미로 해 가지고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통합신당의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는데 정수조정을 먼저 해야 출석을 하

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수조정을 하고 통과시킬 법안을 같이 논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같이 나와서 의논을 하자, 신당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정수조정도 하고 이번 우리 특위에서 통과시킬 법률안도 좀 논의를 하고 하자고 하나까 정수조정부터 먼저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만이 출석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정말로 정개특위에서 자기들이 별로 답답한 법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특위를 공전시키는 것은 정말로 공명정대한, 또 바람직한 대통령선거를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번 대선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자리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합민주신당 특위 위원들은 여기에 출석을 해서 정수조정 문제라든지 또 이번 본회의에서 시급히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환 위원 저도 좀……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저는 사무총장님 오셨으니까 좀 여쭙어 볼게요.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그러나요? 당 이름이 어떻게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대통합민주신당’ 이렇게 전체 명칭을 다 쓰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도열당, 도로 열린우리당 이렇게 도열당……

○박세환 위원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는 투표·개표 업무만 지금 위탁을 받아서 투표 및 개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선거인의 모집 과정에도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확정되어 온 명부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세환 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우려

속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20% 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세환 위원 현재까지 어디가 했습니까? 제주, 울산, 충북, 강원, 이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제주, 울산, 강원, 충북, 네 곳을 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투표율 20%다, 20%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선거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운동 부분은 정당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투개표의 완벽한 관리 거기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이게 보면 5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전신일 수는 있는 거지만 하여튼 범여권의 신당의 전신 정당에서 투표율이 한 67% 정도 됐어요. 또 최근의 한나라당의 투표율을 보면 한 70.8%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한 19%, 20% 사이에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경선’이라는 이러한 비판도 있고, 그러면서 유령 선거인단 문제 얘기도 나오고, 관광버스로 무슨 차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습니까? 선관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투표일 그런 실어 나르기 문제 또 동원 문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적출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게 하여튼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상대 정당의 내부 경선 문제이고 이렇기는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하여튼 우리 법체계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선거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특정 지역에 너무 선거인단 수가

집중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을 허용해 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올 것은 저희로서는 선거인 등록을 받을 때……

○**박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인단의 어떤 비례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당에서……

○**박세환 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염려가 많은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또 보면 출마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말 당선 후에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 제시가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솔직한 얘기로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마를 해 가지고 지금 경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선거관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러다 보면 국민이 이쪽에 대한,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감 내지는 어떤 떨시 비스듬한 조롱거리 이런 것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그냥 이렇게 방치해 뒀도 좋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의 지적도 하실 수 있는 지적사항이지만 당내 경선은 하여튼 최대한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 차원에서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선관위의 투표·개표 부분을 위탁받아 하는 이런 업무를 저희가 도와주는, 당이 주도하고 선관위는 투개표 과정을 관리해 주는 그런 체제들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박세환 위원** 맞아요. 지금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선거에 임하는 태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말입니다, 우리 국민과 유권자의 투표라든지, 개표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선거관리를 한다, 이런 어떤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

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일반 선거에서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전개합니다 마는 이것은 당내경선이라는, 정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세환 위원** 아니, 일반 선거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당의 자율성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공직선거에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당내 경선 같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제도 안내 등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누가 하실래요?

정진섭 위원님!

○**정진섭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상배** 배일도 위원님? 정진섭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정진섭 위원** 총장님이 어렵게 나오셨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도 관심사를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당에서 모바일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입니까, 여론조사입니까, 총장님이 보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도 모바일투표 부분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인데 일단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론조사보다는 투표로 아마 계산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진섭 위원** 저도 이게 여론조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그 비율만큼을 반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투표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투표라고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갖춰야 될 꼴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보통, 직접, 비밀, 이런 원칙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민주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 되는데,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도 일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밀투표라든가 직접투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추론을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투표라고 할 때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는 것을 선거를 총괄하고 계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 이렇게 방관하셔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 내지 감독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이런 제도의 골간이 유지되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데에 기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총장님의 소회는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바일투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했던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을, 시행하겠다는 특정 정당에다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혼동과 혼선이 없도록, 또 말씀하신 4대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는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총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검토를……

이것은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도 하며 또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해서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행여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떤 불복하는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가처분을 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사법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대고 이것에 대한 견해 같은 것을 묻는 일이 거의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로 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배일도 위원 오늘 처녀 참석인데요. 와서 보니까 한쪽 의석이 전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런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정당정치를 내용으로 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행사나 정당의 활동은 보장되어야 되고 최대한 민주주의 의견 수렴에 적합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상호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보다 큰 그리고 범위가 더 넓은 그런 속에서 행사가 치러져야 국정에 저해되는 바가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점 때문에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국회가 비어 있는 날짜,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날짜를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반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적 상황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변칙적인 일정이거나 행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국회가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고 정기국회의 일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다른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시기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도 보면 시간이 촉박하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 또는 정해진 일정을 뛰어 넘어서 공청회 등 이런 절차를 생략해서 바로 직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저는 단순히 당내 행사 이런 점이 아니라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지금 그 내용이 불비한지 아닌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대로는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마는 국회법과 정당법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그게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저는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국회법은 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해 놓고 또 이

런 상태를 예견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저는 부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한쪽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상대 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는 바로 국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또는 교란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회가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알려내야 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조치의 내용으로는 경고 또는 국회법이 정한 기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명시된 그런 절차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7월 초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2개월 남짓, 그동안 1·2·3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각 소위원회별로 7, 8회 이상 소위원회 회의를 해서 상당 부분 합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고 또 결론을 지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 많은데 이제 이것을 각 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한 후에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빨리 의결을 해야 이제 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제 오늘 우리 특위 활동이 특위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특위 활동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도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간사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특위가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정훈 박세환 배일도 이상배  
장윤석 정진섭 주성영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백환기

#### ○정부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

#### 【보고사항】

####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나경원	배일도	한나라당	2007. 9. 18